kotra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05.26.(금) 제23-058호

◈ [Focus] 부채한도 협상 합의 진전 현황 및 현지 반응

◈ [What's News]

· (미중) 미-중 양국 상무장관, 워싱턴 회동 결과 및 현지 반응

· (IPEF) IPEF 디트로이트에서 5.27 장관회의 개최, '공급망' 분야 합의 전망

· (반도체)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 관한 중국의 거센 비난

· (AI) 美 백악관, 책임 있는 AI 연구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조치 발표

◈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부채한도) 부채한도 협상 합의 진전 현황 및 현지 반응

□ 2023 부채한도 협상 개요

○ 주요 언론, 백악관-공화당 간 부채한도 협상 타결 근접을 보도(5.25)

- 외신에 따르면 부채한도를 2년*간 올리되, 국방과 보훈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

*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

- 아울러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IRS에 편성된 800억 달러 예산 중 최대 100억 달러까지 환수될 수 있다 전망

* 단, 해당 예산은 다른 재량 지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것으로 전망

○ 양당, 절충을 통해 각자에게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평

- 공화당은 국방 · 보훈을 제외한 다음 회계연도 재량 예산지출을 '23 회계연도 수준 미만으로 제한, **예산 삭감에 성공**

- 민주당은 환수된 IRS 예산을 교육이나 환경보호 등 재량 지출 분야에 전용 가능, **실질적으로 '23 회계연도 수준 지출 유지** 전망

□ 주요 협상 내용

○ 양측은 지출 한도 설정, IRS 및 국방 예산에 대해 대체로 합의

- ’24 회계연도 국방(8,420억) 및 보훈 예산(1,379억)은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(3.9)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

  * 공화당은 국방 예산 증액률이 다른 항목 대비 저조하다며 비판해 왔음

- 그 외 재량 지출은 대통령 예산안 대비 소폭(slightly) 삭감되나 IRS 예산 전용을 통해 ’23년 수준을 유지할 기회를 열어뒀으며

  * 공화당은 ’22년 수준으로 재량 지출 수준을 환원하자고 주장해왔음

- 세입 증가를 위한 추가 감사관 고용 등 명목으로 편성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IRS 예산 800억 달러 중 약 100억 달러 환수 예정

  * 공화당, 이번 회기 첫 법안으로 IRS 예산 700억 달러 편성 폐지를 결의(1.9)

- ’25 회계연도까지만 재량 지출 증액률 한도를 1%로 설정

  *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재량 지출 증액률 한도를 1%로 설정하자고 주장

- 부채한도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2024년 말까지 유예하거나 4조 달러 상향이 유력

  * 공화당 기존 법안은 부채한도 1.5조 달러 상향 내지 ’24.3.31까지 유예

○ 연말 정부 셧다운 회피 등을 위한 추가 조항 포함 논의 중

- 공화당이 이후 예정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출 삭감을 시도하거나 및 예산안을 부결하지 못하도록 협의 중

○ 그러나 화석 연료 증산 및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합의점 없이 지속 대치

- 공화당의 부채한도 증액안에는 미국 내 화석 연료 증산 장려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의무근로조건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나,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이 거센 상황

□ 현지 반응

○ 현지 언론은 양측이 절충을 통해 나름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

- '24년 국방 · 보훈 예산 외 **재량 지출을 삭감**하고 증세의 주요 수단인 IRS 확장 예산을 감액*한 것은 공화당의 승리로,

  * 단,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전망

- '24년 재량 지출 삭감에도 불구, IRS 환수 예산 전용 등으로 **'23년 수준을 실질적 유지**할 길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승리로 평가

○ 협상 최종 합의 및 양원 통과까지 험난한 길 예측, 기한 내 타결 우려

- 저소득층 복지 관련 대치로 주말까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 제기
- 공화당 강경파는 현재까지 유출된 협상 내용에 강한 불만족 표출, 민주당 "블랙 코커스"와 "프로그레시브 코커스"도 협상안에 의무근로조건 강화가 포함될 경우 동의표를 던지지 않을 전망
- 한 편, 맥카시 의장이 준수를 공언한 "72시간 법안 검토"가 연방 현금 고갈 이전 하원 타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가운데
-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, 충분한 지출 삭감 없이는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서 상원 표결을 지연하겠다 발언
- 옐런 재무장관은 기존보다 4일 정도 연장된 6월 5일경 연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의회에 서한 발송(5.26)

○ 한 편, 이번 협상으로 인해 양당 하원 지도부 교체 가능성 제기

- 맥카시는 의장 선출을 위해 하야 표결 요건을 한 명으로 줄였으며,
- 하킴 제프리스도 이번 협상 도출에 기여가 없다는 비판을 직면

○ 부채한도 협상 진전에 따른 타결 기대로 시장은 긍정적 반응

- 다우 지수는 약 300포인트(+1%), 나스닥도 약 270포인트(+2.2%) 상승하는 등 주요 지수 강세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▪ 자료원	로이터(5.26), 폴리티코(5.26), NYT(5.25) 등

What's News

□ [미중] 미-중 양국 상무장관, 워싱턴 회동 결과 및 현지 반응

○ **(개요) 왕원타이 상무부장**, 방미 후 **레이몬도 장관**과 **비공개 회담**(5.25)

- 회담 직후,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"미-중 통상 관계에서 양국 장관 간 솔직하고(candid) 실질적인(substantive) 논의가 있었다"라고 논평
- 레이몬도 장관은 근래 중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,
-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, '22년 G20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관리에 노력할 뜻을 밝힘.

○ **(반응) 중국**은 **반도체, 수출통제, 외국인 투자 감독** 등에 **불만 토로**

- 현지 언론은 지난주 열린 G7 정상회의와 중국의 마이크론사 제재 등으로 악화한 양국 갈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
-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11월 미국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에서 바이든-시진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목적으로 해석
- 왕 부장은 26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APEC 통상 장관 회의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

○ **(참고)** 왕 부장은 **방미 직전** 22일 **주중 미국 기업 대표**와 면담, 의견 청취

- 중국 주재 J&J, 3M, Dow, Merck, Honeywell 등 미국 기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중 간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경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상무부(5.25), 로이터통신(5.25), 파이넌셜타임즈(5.25), SCMP(5.23)

□ (IPEF) IPEF 디트로이트에서 5.27 장관회의 개최, '공급망' 분야 합의 전망

○ **(개요) IPEF 장관급 회의(디트로이트, 5.27) 개최 예정**

- 미국 대표단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필두로 IPEF 장관급 회의를 5.27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 예정
- 이번 회의는 '22년 12월 호주 브리즈번, '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, 5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참가국 간 4개 분야 합의 진전 목표

○ **(상세) 4개 분야별(△무역, △공급망, △청정경제, △공정경제) 논의 진전 모색, '공급망' 분야는 참가국 간 합의 근접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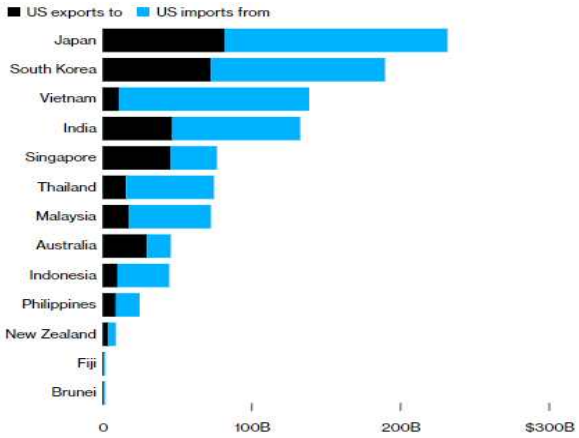
- 현지 언론에 따르면 '공급망' 분야관련 회원국 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노동 관련 제안은 아직 논쟁의 여지 존재
- 환경 및 노동 약속에 대한 우려로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무역과 같은 다른 의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
- 5.27일, IPEF 통상장관급 회의 이후 후속 기자회견 개최 예정

<IPEF 14개 참여 회원국>

* 주: IPEF 회원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34조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GDP의 약 41% 차지(2022)

[자료] 블룸버그

<2022년 미국과 IPEF 회원국 간 수출입규모>



[자료] CRS, 블룸버그 인용

○ **(참고) 5월 25-2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, WTO 역할 등 무역현안 논의**

- APEC 의장국 미국은 주요 의제로 다자무역체제 역할강화, 지속가능·포용적 무역증진, 공급망 및 기후위기 논의 등 언급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USTR(5.15), 인사이드트레이드(5.26), 블룸버그(5.18)(5.26) 등

□ [반도체]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 관한 중국의 거센 비난

○ **(개요) 중국 당국,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비난 성명** (5.23)

- 중국은 올해 7월 23일 일본이 시행하는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에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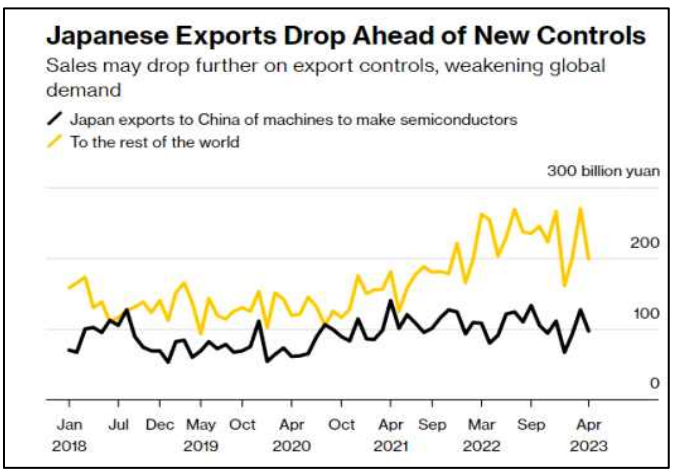
○ **(상세)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 악화 가능성 고조**

- 중국이 일부 국내 기업들의 Micron Technology Inc. 반도체 사용을 금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 반대 의견을 보임
-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수출 제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대응
- 중국은 세계무역기구(WTO)에 미국과 일본, 네덜란드가 발표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사할 것을 촉구

○ **(참고) 미래 중국 칩 산업에 들어온 적신호**

- 현재 상황은 미국이 수개월 간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선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로비한 결과
- 일본의 새로운 규제는 중국 회사들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

<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추이 >



[자료 : 일본 재무성]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한유림
▪ 자료원	블룸버그(5.23)

□ (AI) 美 백악관, 책임 있는 AI 연구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조치 발표

○ **(개요) AI 연구, 개발 및 배치 관련 백악관**(과학정책실, 교육기술국) **팩트시트 공개**

- 개인과 사회,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AI 위험요인을 관리하고, 사람과 공공의 선 위주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노력

- AI R&D의 연방투자 가이드라인 개정, AI 활용을 위한 대중 의견 요청, 교육에서의 AI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보고서 발행으로 AI 혁신 대비 노력

○ **(상세) 4년 만의 '국가 AI R&D 전략계획안' 개정, AI 관련 로드맵 주목**

- R&D 전략으로 9개의 세부 전략 제시, 기존 8개 전략에 9번째 신규 전략 추가

  - (전략 1) 책임 있는 AI 연구에 대한 장기투자
  - (전략 2) 인간과 AI의 협업을 위한 도구 개발
  - (전략 3) AI가 지닌 윤리적·법적·사회적 함의 이해
  - (전략 4) AI 시스템의 확실한 안전과 보안 확립
  - (전략 5) AI 훈련 및 시험을 위한 공공 데이터셋 및 환경 개발
  - (전략 6) 기준과 벤치마크를 통한 AI 시스템 측정과 평가
  - (전략 7) 국가의 AI R&D 인력 요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
  - (전략 8) AI의 발전 가속화를 위한 공적-사적 파트너십 증대
  - (신규) (전략 9): AI 연구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한 원칙적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 확립

  * 환경 지속가능성, 의료, 제조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 R&D의 국제 협력 우선

○ **(반응) 폴리티코, 발표된 새 로드맵과 AI 관련 국제 합의 사항에 주목**

- 새 로드맵 발표는 AI 거버넌스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G-7 히로시마 공동 성명의 맥을 잇는다고 보도

- 다음 주, 미국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전망 (5.30-31, 스웨덴)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박소현
▪ 자료원	백악관(5.23), 폴리티코(5.23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Debt-Ceiling Negotiators Clash Over Work Rules as Deal Takes Shape (윤곽이 드러나는 부채협상안, 그러나 의무근로조건은 타협 불가)
	양 측간 부채협상안 합의 내용이 공개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에 의무근로요건을 강화하는 건에 대해서는 양측이 타협이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
The Washington Post	U.S. will default on June 5 if debt limit not raised, Treasury says (재무부, 부채한도 미 상향시 6월 5일경 채무 불이행 불가피)
	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 채무 불이행 위험 관련 새로운 X-date를 제시. 바이든 및 맥카시, 진전이 있다 밝히고 있지만 금요일 현재 아직 미타결
New York Times	Treasury Expects to Run Out of Cash by June 5, Slightly Extending Deadline (재무부, 6월 5일 경 현금고갈 예정... 살짝 연장된 X-date)
	이번 옐런 재무장관의 서한은 지금까지 밝힌 예측일 중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... 지난 목요일, 재무부의 현금 보유량은 388억 달러 수준까지 도달
CNN	"Hell no" : GOP negotiator says Republicans won't drop demand for work requirements in deal to avoid default (공화당, 의무근로조건 강화 포기 못해)
	공화당 협상진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의무근로조건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. 현재 협상은 푸드 스탬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더해.

* 미국 동부시간 5월 26일 17시 기준

Notice

□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◈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6	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5월
US23-15	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	2023.05월
US23-14	미국 반도체 R&D 지원 정책 방향	2023.04월
US23-13	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4월
US23-12	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	2023.04월
US23-11	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	2023.03월
US23-10	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3월
US23-09	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	2023.03월

◈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☜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◈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☞유튜브 KOTRA TV☜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1 (2023.5.8)		
코인시-10 (2023.4.17)		